

초기 성인기의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 선 영	이 중 환	임 중 민	장 문 선 [†]
경북대학교	울산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의학교육학교실	심리학과	심리학과
석사 졸업	연구교수	조교수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 긴급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전국 20-39세 성인 436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정신화는 초기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 예방에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정신화의 조절적 역할을 검증하고 대인관계 문제의 기제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정신화, 부정 긴급성, 반응적 공격성, 대인관계 문제

* 본 연구는 김선영(2023)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초기 성인기의 부정 긴급성, 반응적 공격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문선 /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Tel: 053-950-5247 / E-mail: moonsun@knu.ac.kr

 Copyright ©2025,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간은 전 생애 동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며, 부모-자녀 관계를 시작으로, 형제자매, 친구, 동료 및 선배 등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성장한다(권석만, 2004).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권석만, 2017), 만족스럽고 건강한 대인관계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안하얀, 서영석, 2010; 한나리, 이동귀, 2010), 삶의 만족도와 개인의 행복에 기여한다(Reis & Gable, 2003). 즉,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서경현 외, 2013).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관계 형성과 유지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인관계 문제라 한다(박경애 외, 1998; Horowitz et al., 1988).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경험은 부적절감, 우울, 불안, 소외감 등의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며(Mackintosh et al., 2018), 반복적인 거절, 무시, 갈등, 공격적 상호작용은 자기-타인 표상(self-other representation)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타인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훼손되고, 관계에서 지속적인 긴장과 회피, 과도한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다(Bowlby, 1988; Mikulincer & Shaver, 2007). 이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반복적 갈등과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정남운, 2005),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이나 행동적 특성(예: 충동성, 공격성, 우울, 불안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인관계 갈등과 문제를 초래하거나 악화시키기도 한다(Coyne, 1976; Davila & Beck, 2002; Segrin, 200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기 성인기는 타인과의 대인관계가 확장되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요한 시기로, 그 어느 시기보다 대인관계의 형성 및 변동성이 크다(이한우, 염동문, 2015). Erikson(1963)은 이 시기를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정의하며,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초기 성인기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대인관계의 질이 중요한 시기이다(Arnett, 2000). 이 시기에 대인관계의 실패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강화시키며, 이는 심리적 혼란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Erikson, 1963; Mikulincer & Shaver, 2007). 실제로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문제는 성격 문제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Horowitz, 1996). 또한 초기 성인기 내담자들은 친구 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도 한다(La Greca & Harrison, 2005). 이를 고려할 때, 초기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이 시기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이해하고 적절한 심리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evinson(1986)과 Erikson(1968)이 주장한 정의에 따라 초기 성인기를 20~30대로 설정하여 20~39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정 긴급성(negative urgency)은 강렬한 부정 정서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으로, 부정 정서와 충동성이 통합된

정서 충동성(affective impulsivity) 요인이다(Cyders et al., 2007).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직접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지만, 부정 긴급성이 대인관계에서 의심 및 적대감, 불신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Zheng et al., 2022), 사회적 맥락이 모호할 때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 편향과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gnon & Rochat, 2017). 이러한 연구들은 부정 긴급성이 높은 개인이 모호한 사회적 단서를 적대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의심과 함께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부정 긴급성이 높은 개인은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가 유발될 때 이를 즉각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보복하거나 사회적 철수 또는 과도한 재확인 추구(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등의 충동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Lesnack & Mendle, 2021; Zimmer-Gembeck et al., 2016), 이러한 행동은 정서조절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Carver & Johnson, 2018). 이는 부정 긴급성 개념 자체에 정서조절 능력의 취약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임선영, 이영호, 2017). 더불어 부정 긴급성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우며(Cyders & Coskunpinar, 2010), 반추나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전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King, et al., 2018). 이러한 특성은 부정 긴급성이 자동적이고 통제 어려운 정서적 반응임을 보여주며(Schulz et al., 2007), 직접적인 조절보다는 상위 인지적 자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내포한 부정 긴급성은 대인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으로 이

어지기 쉬우며, 특히 자극에 대한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나타날 수 있다(Grimaldi et al., 2014; Scott et al., 2015). 부정 긴급성이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제시된다. 첫째, 강렬한 정서 상태에서는 성급하고 숙고되지 않은 행동이 쉽게 촉발된다(Cyders & Smith, 2008). 둘째, 부정 정서는 인지적 통제 능력을 저하시켜 부적절한 반응 억제나 결과 고려를 어렵게 만든다(Berg et al., 2015). 마지막으로, 충동적 행동은 부정 정서를 즉각적으로 완화시켜 일시적인 통제감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경험은 다시 충동적 행동을 강화한다(Cyders & Smith, 2008; Ayduk et al., 2000). 이러한 기제들은 부정 긴급성이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행동적 결과를 통해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반응적 공격성은 이러한 부정 긴급성의 행동적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Dodge와 Coie(1987)는 공격성을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주도적 공격성은 목적 달성이나 특권 등과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한 목표 지향적 공격행동인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사회적 위협이나 도발에 분노 및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3; Berkowitz, 1993). 이러한 공격성은 과민성과 충동성(Stanford et al., 1995), 분노/적대감(Stanford et al., 2003) 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부정 긴급성과 높은 연관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주도적 공격성은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부정 긴급성에만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Miller et al., 2012),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Hecht & Lutzman, 2015; Scott et al., 2015; Settles et al., 2012).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모두 대인관계에서 불신, 적대감, 분노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긴급성은 강한 부정 정서 상황에서 충동적이고 대인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Peters et al., 2016; Porcelli, 2019). 이러한 점에서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은 특정 대인관계 패턴과 연결될 수 있다. 대인관계 원형 모델(interpersonal circumplex model [IPC])은 권위(agency)와 친화(communion)라는 두 직교차원으로 구성된 원형에 개인을 위치시키며, 두 축을 기준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가지 대인관계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Wiggins, 1991). Horney(1945/2006)에 따르면, 유아기 대인관계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무력감, 고립감, 적대감 등의 근본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사람에게 향함(moving toward people), 사람에게서 멀어짐(moving away from people), 사람에게 맞섬(moving against people)의 대인관계 양식을 발달시킨다. 구체적으로, 향함 문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과도하게 책임지려 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것으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이 포함된다. 멀어짐 문제는 친밀감을 느끼고 사회적 접촉 및 자기표현을 어려워하고 피하며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냉담과 사회적 억제가 포함된다. 맞섬 문제는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가 포함된다. 실제 연구에서도

적대감이 높은 개인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대인관계 양식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다(Smith et al., 1989; Smith et al., 1990; Smith et al., 1996).

또한,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된 인지왜곡은 자기정당화, 타인 비난, 도덕적 우월감 등 자기중심적 태도와 연결되어 공격적 충동이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대인관계로 연결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Koolen et al., 2012). 실제로 반응적 공격성은 타인으로부터 거부, 대인 갈등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며(Poulin & Boivin, 2000), 높은 분노와 적대감, 정서 및 행동 조절의 어려움,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과 관련되어 또래 집단 내 거부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홍, 김은정, 2012; Marcus & Kramer, 2001; Vitaro et al., 2002). 이러한 근거들은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와 같은 통제적 대인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세 가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통제적 대인관계 문제를 특정하고,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정 긴급성은 인지적 숙고 없이 빠르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치료적 개입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Whiteside & Lynam, 2001). 긴급성 이론에 따르면 강렬한 정서 경험은 이용 가능한 인지적 자원의 손실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 정서가 간섭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Bechara, 2004, 2005; Dolan, 2007; Shiv et al., 2005). 이러한 특성은 개인이 순간적 정서 경험을 조절하거나 장기적 목표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 신경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부정 긴급성은 편도체

중심의 상향식 정서 반응과 관련되며, 이러한 반응은 상위 전전두피질 구조 (orbitofrontal cortex,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anterior cingulate cortex 등)의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때 더욱 강화된다(Cyders & Smith, 2008). 이러한 점에서 정서적 충동성과 행동 조절 사이에는 노력적 통제(effortful control)가 필요하며(Davidson, 2003), 자동적 반응 경향을 조절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상위 인지적 능력의 탐색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위 인지적 능력으로 본 연구는 정신화(mentalizing)에 주목하였다. 정신화는 Fonagy (1991)가 애착이론과 정신역동적 관점을 통합하여 제안한 개념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욕망, 감정, 신념과 같은 주관적 심리상태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Bateman & Fonagy, 2007, 2016). 관련 신경생리학적 연구에서도 정신화와 관련된 전전두엽 영역(medial prefrontal cortex, temporoparietal junction 등)은 편도체 기반의 자동적 감정 반응과 달리,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을 계획·조율하는 하향식 처리 방식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ster-Hale et al., 2017). 이러한 점에서 정신화는 부정 긴급성과는 처리 층위와 방식이 다른 상위 인지적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Fonagy(2003)는 공격 행동의 발달 경로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오해, 즉 사회인지 기능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 손상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타인의 정신 상태를 적절히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의 결여가 공격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정신화 능력은 공격적 행동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Taubner & Curth, 2013;

Taubner et al., 2016),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정신화 능력이 반응적 공격성이나 주도적 공격성과 같은 파괴적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화 능력의 함양은 공격성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Schwarzer et al., 2021; Twemlow et al., 2001). 더 나아가, 정신화는 상대의 내면 상태를 추론하고 이에 근거해 자신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상호작용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대인관계 질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수진, 김은석, 2021). 실제 연구에서도 정신화 수준이 높은 개인의 경우 충동성이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화 능력이 높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반영함으로써 충동적인 공격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Parada-Fernández et al., 2021). 이러한 점에서 부정 긴급성이 높더라도 정신화 수준을 높이는 개입은 정서적 충동성을 보다 적응적으로 조절하고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의 직접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부정 긴급성, 반응적 공격성,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정신화 각각의 관련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나 변인들 간의 통합적 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적대감, 분노와 관련되고, 이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싸우려는 대인관계 양식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 중에서도 ‘사람에게 맞섬’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를 포함하는 통제적 대인관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부정 긴급성이 자동적이고 충동적인 정서 반응이라는 점에서 조절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상위 인지적 변인으로서 정신화에 주목하였고, 정신화가 반응적 공격성을 매개로 한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반응적 공격성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정신화가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정신화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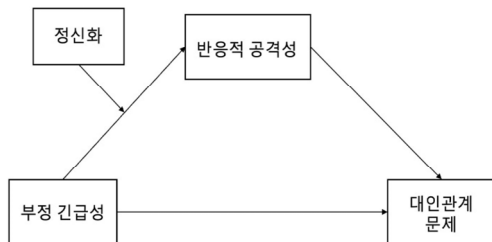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No. 2022-0262)의 승인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 조사 업체 인바이트(invight)를 통해 전국의 20-39세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4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 210명(48.2%), 여성 226명(51.8%)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0.36세($SD = 5.16$)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Impulsive Behavior Scale [UPPS-P])

본 연구에서는 부정 긴급성을 측정하기 위해 Whiteside와 Lynam(2001) 및 Cyders 등(2007)이 개발하고 임선영과 이영호(2014)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는 부정 긴급성, 긍정 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 추구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부정 긴급성을 측정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1점: 매우 동의한다, 4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평정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에 따른 충동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선영과 이영호(2014)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정 긴급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자기보고식 공격성 및 사회적 행동

질문지(Self-Report of Aggression and Behavior Measure [SRASBM])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한 자기보고 식 공격성 및 사회적 행동 질문지(SRASBM)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관계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피해, 신체적 피해, 배타성, 친 사회적 행동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6개의 하위척도는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및 애정관계에서의 공격성으로도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아(2015)가 번안한 SRASBM 중 반응적-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문의 문장 구조와 단어 표현은 학술적 문맥과 대상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문항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평정은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RASBM 원척도를 사용한 Bailey와 Ostrov(2008)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이 .76, 반응적-신체적 공격성이 .79였으며, 수정된 9문항에 대해 Cronbach's α 가 .91로 나타났다.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
(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Horowitz 등(1988)이 개발하고 Alden 등(1990)이 재구성한 원형척도(IIP-Circumplex Scale {IIP-SC})를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

관여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Horney(1945/2006)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는 '사람에게 향함', '사람에게 맞섬', '사람에게 멀어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에게 맞섬' 유형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세 가지 하위요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5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1-.89의 범위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아울러, Horney(2006)의 이론에 따라 3개의 대인관계 문제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강수정과 유금란(2016)의 연구에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가 포함된 '공격형'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한국판 정신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 {K-Ments})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를 측정하기 위해 Dimitrijević 등(2018)이 개발한 정신화 척도(The Mentalization Scale {Ments})를 이수림과 이문희(2018)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화 척도(K-Ment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에 대한 정신화, 타인에 대한 정신화, 정신화동기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수림과 이문희

(2018)의 연구에서 정신화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v.21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IBM SPSS Statistics 25.0과 Hayes(2021)의 PROCESS macro v.4.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SPSS 25.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 관계에서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21)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사용하여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와,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을 거쳐 대인관

계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으며, 조절변인의 수준을 나누어($M, M \pm 1SD$) 간접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Curran 등(1996)이 제안한 왜도 절대값 2 미만, 첨도 절대값 7 미만에 해당하여 표본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에 따르면, 부정 긴급성은 반응적 공격성, 대인관계 문제와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조절변인인 정신화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응적 공격성은 대인관계 문제와 정적 상관을, 정신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1	1			
2	.34**	1		
3	.38**	.38**	1	
4	-.36**	-.27**	-.54**	1
<i>M</i>	25.32	18.59	22.14	86.22
<i>SD</i>	7.28	9.54	8.55	13.21
왜도	.07	1.09	.63	.07
첨도	-.45	.12	-.16	.12

주. 1 = 부정 긴급성; 2 = 반응적 공격성; 3 = 대인관계 문제; 4 = 정신화. ** $p < .01$.

회화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화의 관계는 부적 상관이 나타나, 주요 변인들 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측정 모형 검증

측정 변인이 잠재 변인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에 앞서 모수 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모든 오차 분산이 양의 값을 나타내 Heywood case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모수 추정치의 C.R.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는 단일 지표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각 지표가 모형의 다른 측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Hu & Bentler, 1999; Kline, 2015; Schermelleh-Engel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χ^2 지수를 포함한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등 다양한 적합도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SRMR 값이 .08 미만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Hu

& Bentler, 1999), .10 미만일 경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Mueller & Hancock, 2010). TLI와 CFI는 각각 .90 이상일 때 바람직하며, RMSEA는 .10 미만일 경우 보통 수준의 적합도(mediocre fit), .10을 초과할 경우 부적합한 수준 (unacceptable fit)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164) = 624.41, p < .001, SRMR = .08, TLI = .89, CFI = .91, RMSEA = .08$ (90% CI [.07, .0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 긴급성은 반응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B = .45, p < .001$), 반응적 공격성 역시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 = .62, p < .001$). 한편, 부정 긴급성이

표 2.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t</i>	95% <i>LLCI</i>	95% <i>ULCI</i>
부정 긴급성 → 반응적 공격성	.45	.06	7.56***	.33	.56
부정 긴급성 → 대인관계 문제	.31	.05	6.66***	.22	.40
반응적 공격성 → 대인관계 문제	.62	.04	17.63***	.55	.69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변인	estimate	<i>SE</i>	95% <i>LLCI</i>	95% <i>ULCI</i>	
반응적 공격성	.21	.03	.15	.27	

주. CI = 95% 신뢰구간; LL = 하한값; UL = 상한값. *** $p < .001$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여($B = .31, p < .001$), 반응적 공격성이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도출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10,000번 반복 추출하는 방식으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B = .21, 95\% \text{ CI} [.15, .27]$)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

부정 긴급성이 매개변수인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점수를 평균 중심화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 =$

$.36, p < .001, 95\% \text{ CI} [.24, .48]$), 정신화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 = -.13, p < .001, 95\% \text{ CI} [-.20, -.07]$). 또한, 부정 긴급성과 정신화의 상호작용항 역시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 = -.01, p = .002, 95\% \text{ CI} [-.019, -.004]$),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경로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화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에 따른 설명력(R^2)의 변화량은 2%로 확인되었다($\Delta R^2 = .02, p < .01$).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화 수준을 평균(M)을 기준으로 저($M - 1SD$), 중(M), 고($M + 1SD$)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신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정신화 수준에서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는 유의하였다. 특히 정신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B = .51, p < .001, 95\% \text{ CI} [.36, .66]$), 정신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그 효과 크기가 감소하였다($B =$

표 3.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반응적 공격성				
	<i>B</i>	<i>SE</i>	<i>t</i>	95% <i>LLCI</i>	95% <i>ULCI</i>
부정 긴급성(A)	.36	.06	5.82***	.24	.48
정신화(B)	-.13	.03	-3.91***	-.20	-.07
(A) x (B)	-.01	.00	-3.00**	-.019	-.004

주. CI = 95% 신뢰구간; LL = 하한값; UL = 상한값. ** $p < .01$, *** $p < .001$

표 4. 정신화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정신화	B	SE	t	95% LLCI	95% ULCI
M - 1SD	.51	.08	6.56***	.36	.66
M	.36	.06	5.82***	.24	.48
M + 1SD	.21	.08	2.65**	.06	.37

주. CI = 95% 신뢰구간; LL = 하한값; UL = 상한값.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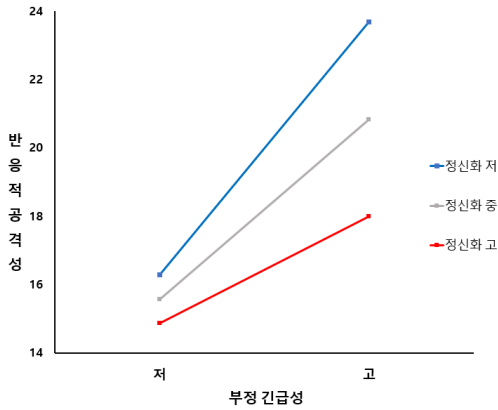


그림 2. 정신화의 조절효과

.21, $p < .01$, 95% CI [.06, .37]).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됨을 의미하며, 정신화가 이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부정 긴급성, 반응적 공격성,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을 거쳐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표 5. 부정 긴급성, 반응적 공격성,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종속변인: 반응적 공격성					
	B	SE	t	95% LLCI	95% ULCI
부정 긴급성(A)	.36	.06	5.82***	.24	.48
정신화(B)	-.13	.03	-3.91***	-.20	-.07
(A) x (B)	-.01	.00	-3.00**	-.019	-.004
종속변인: 대인관계 문제					
	B	SE	t	95% LLCI	95% ULCI
부정 긴급성	.31	.05	6.66***	.22	.40
반응적 공격성	.62	.04	17.63***	.55	.69

주. CI = 95% 신뢰구간; LL = 하한값; UL = 상한값. *** $p < .001$.

표 6.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 검증

경로	Index	Boot SE	95% LLCI	95% ULCI
부정 긴급성 → 반응적 공격성 → 대인관계 문제	-.01	.00	-.012	-.001

주. CI = 95% 신뢰구간; LL = 하한값; UL = 상한값.

표 7. 정신화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정신화	B	SE	95% LLCI	95% ULCI
M - 1SD	.32	.05	.22	.43
M	.23	.04	.15	.31
M + 1SD	.13	.04	.05	.23

주. CI = 95% 신뢰구간; LL = 하한값; UL = 상한값.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 = .36$, $p < .001$, 95% CI[.24, .48]), 정신화는 반응적 공격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 = -.13$, $p < .001$, 95% CI[-.20, -.0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긴급성과 정신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 $p = .002$, 95% CI[-.019, -.004]).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조절된 매개지수(Index)는 -.01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012, -.001]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정신화 수준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 간접효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정신화 수준이 낮은 집단(M - 1SD), 평균 수준(M), 높은 집단(M + 1SD) 모두에서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세 수준

모두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신화 수준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 정서에 대한 충동적 반응 경향을 보이는 개인의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임상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반응적 공격성은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 긴급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반응적 공격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부정 긴급성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부정 긴급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Lesnack & Mendle, 2021) 와 일치한다. 부정 긴급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모호한 사회적 단서를 쉽게 적대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Gagnon & Rochat, 2017),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불신하고, 타인을 지배하려 하거나 싸우고자 하는 등의 대인관계 유형을 나타내면서(Horney, 2006)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어서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을 거쳐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높은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박성원 외, 2017; Hecht & Latzman, 2015; Scott et al., 2015; Settles et al., 2012),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Fite et al., 2012; Marcus & Kramer, 2001; Poulin & Boivin, 2000) 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부정 긴급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경험한 부정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함으로써 보복과 같은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Zimmer-Gembeck et al., 2016), 이는 자기정당화, 타인 비난, 도덕적 우월감 등의 자기중심적 태도와 연결되어(Koolen et al., 2012) 공격적 행동이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정신화가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즉, 부정 긴급성과 정신화가 상호작용하

여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신화 수준에 따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화를 저 수준, 중 수준, 고 수준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수준에서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정신화 수준이 낮을수록 그 관계의 효과 크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고, 정신화 수준이 높을수록 그 영향은 완화되었다. 이는, 부정 긴급성이 높더라도 개인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신화 능력이 충분하다면,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정신화는 정서적 충동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격적 행동을 조절하는 상위 인지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정서 반응성과 행동 간의 연결고리를 완충하는 보호적 역할을 수행한다. 부정 긴급성은 정서적 자극이 우세할 때 반응 억제 능력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며(Schulz et al., 2007; Verbruggen & De Houwer, 2007), 이러한 자동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성은 단기간 내에 직접 수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충동성 자체를 직접 조절하기보다는, 정서 인식 및 조절능력을 강화하는 간접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Cyders & Smith, 2008; Evans & Rothbart,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정 긴급성은 임상 현장에서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 정서적 충동성의 한 형태이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중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

Fonagy와 Target(1997)은 정신화 능력이 인생

초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다고 보았다. 주 양육자가 유아의 생각과 감정 같은 내적 경험을 적절히 처리하고 반응해 줄 때, 유아는 이를 반복적으로 내면화하며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인식하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권유경, 2016). 그러나 양육자가 유아의 내면을 적절히 반영(mirroring)하지 못하면, 유아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상할 기회를 상실하고,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정신화 실패에 이를 수 있다(Braungart-Rieker et al., 2001; Haley & Stansbury, 2003). 이처럼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주관적 경험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면, 아동은 자신의 경험을 표상하지 못한 채 양육자의 이미지를 자기표상으로 내면화하게 되며, 이는 내면의 단절된 부분인 ‘이질적 자기(alien self)’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표상을 가진 채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없어서 타인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과도한 경계심을 유발하며(Bateman & Fonagy, 2013), 이질적인 자기를 외부에 투사하려는 시도로서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공격성을 표출하게 만든다(Fonagy, 2001). 이는 외재화 시도가 실패할 때 더욱 강해지며, 타인에 대한 폭력은 결국 자기 내부의 이질적 부분을 파괴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소망의 표현이 된다. Klein의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정신화 능력은 편집-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 간의 발달적 순환 속에서 형성되며, 정신화 실패는 내적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의 반복,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자기 파괴적 이질적 자기의 재외현화로 이어져 결국 공격성으로 표현된다(차혜명, 김은명, 2016).

정신화 기반 치료(Mentalization-Based Therapy

[MBT])는 정신화 수준의 증진을 통해 이러한 초기 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자 한다(Fonagy, 2001). MBT는 내담자의 현재 주관적인 상태를 공감적으로 설명하기, 탐색하고 명료화하고 적절하게 의문을 제기하기, 정동을 인식하고 주목하기, 관계를 정신화하기와 같은 일련의 치료 개입으로 구성된다(Bateman & Fonagy, 2013). 이를 통해 내담자가 상황을 자동적이고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암묵적 정신화에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숙고해보는 명시적 정신화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그리하여 내면상태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회적 참조 없이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는 상태를 줄여 보다 현실적인 자기 인식과 타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이수진, 김은석, 2021). 이처럼 정신화 능력은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조절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타인의 심리를 공감하는 것이 폭력이나 공격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기본 가정을 뒷받침한다(Fonagy & Allison, 2013; Fonagy & Luyten, 2018; Twemlow et al., 2001). 더 나아가 MBT는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고유한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재인식하고,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재평가하고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현실 지각(intact reality testing)과 정서조절을 가능하게 한다(Fonagy & Campbell, 2017; Fonagy et al., 1998). 즉, 부정 정서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개인에게 정신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타인의 심리를 공감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적응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반응적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치료적 개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

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신화가 단순히 정서적 충동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정서 반응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고 그것이 다시 관계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상위 인지적 조절 자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화 능력의 향상은 의도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내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해석하게 함으로써, 자동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정서적 각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능은 공격적 행동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 행동을 줄이게 하며,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지는 심리행동적 경로의 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화는 반응적 공격성을 통한 부정 정서의 외현화 대신, 정서와 행동 사이를 성찰적으로 매개하는 조절 전략으로 기능하여, 부정 긴급성이 유발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예방하거나 약화시키는 심리적 보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 긴급성은 정서적 압박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 충동성의 한 요인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부정 정서 및 자해행동(임선영, 이영호, 2016), 음주 문제(임선영, 고은영, 2017) 등과 연계하여 탐색되어 왔다. 반면, 부정 긴급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정 긴급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부정 긴급성이라는 내적 특성이 핵

심적인 위험 요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반응적 공격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정서적 충동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심리적 경로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성인기의 정서 충동성이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초기 성인기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대인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중요한 발달 시기로, 이 시기의 대인관계 문제는 심리적 적응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을 확인하고, 정신화가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보호적 인지 자원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부정 긴급성과 같은 정서 충동성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직접 개입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지만, 정신화 능력 향상을 통한 간접적 조절이 가능함을 보여주어 초기 성인기의 대인관계 적응을 지원하는 중재 전략으로서 정신화 기반 치료(MBT)의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의 반응적 공격성과 대인관계 문제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중재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3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정되었으며, 이는 표본의 제한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2-3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주요 변인들이 경계선 성격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의 핵심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Fonagy & Luyten, 2009; Gardner et al., 2012; Taherifard et al., 2015), 실제 임상 집단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을 BPD와 같이 정서조절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정신화 기반 치료(MBT)와 같은 개입 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방향으로 응답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문의 제한점을 보완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 긴급성이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으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부정 긴급성의 직접적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반응적 공격성을 제외한 또 다른 변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정 긴급성은 적대적 귀인 편향(Gagnon et al., 2015; Gagnon & Rochat, 2017), 정서조절 곤란(임선영, 이영호, 2016; Ammerman et al., 2015)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 부정 긴급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정신화는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정신화 수준에서 부정 긴급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정적 관계가 여전히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정신화의 조절효과의 크기가 작은 수준으로 나타나 완전한 완충보다는 부분 완충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된 조절효과는 정신화가 상위 인지적 처리 과정으로, 부정 긴급성과 같은 자동적 정서 반응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린 데 더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화 척도가 일부 차원만을 측정하고 있어, 공격성과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정신화 차원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정신화를 자동적/암묵적-통제적/명시적, 내적-외적, 인지적-정서적, 자기 초점-타인 초점 등 여러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각 차원이 공격성에 대해 서로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Herrero-Fernández et al., 2022; Parada-Fernández et al., 2021). 또한, 반응적 공격성은 생물학적 충동성, 정서적 민감성,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어(Crick & Dodge, 1996; Lickley & Sebastian, 2018) 정신화의 경로만으로 전체 변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정신화 기반 훈련(MBT)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자동적·충동적 정서 반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Fonagy & Bateman, 2016; Luyten et al., 2020).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정 긴급성 수준이 높은 개인을 대상으로 정신화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개입을 실시했을 때 반응적 공격성이 감소하는지 검증하는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신화 훈련의 장기적 효과와 충동적 정서 반응 완화 가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 기능의 수준만을 분석하였고, 정신화가 왜곡되거나 과도한 특성을 가지는 과잉정신화(hypermoralizing)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못했다. 과잉정신화는 타인의 내적 상태를 과도하거나 부정확하게 해석하여 대인관계 갈등 및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Sharp et al., 2013). 또한,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과잉정신화, 정서조절 전략, 자기통제력과 같은 다양한 상위 인지적 요인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391-411.
<https://doi.org/10.15842/kjcp.2002.21.2.009>
- 김현아 (2015).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정서조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 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연구보고서, No. 63)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kyci.or.kr/userSite/lib/public_read.asp?idc=R63
- 박성원, 전선영, 박수현 (2017).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주의편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1), 20-32.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03>
- 서경현, 신현진, 양승애 (201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837-851.
<https://doi.org/10.17315/kjhp.2013.18.4.014>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74354>
- 강수정, 유금란 (2016).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7(4), 275-294.
<https://doi.org/10.15703/kjc.17.4.201608.275>
- 권석만 (2004).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https://kobic.net/book/bookInfo/view.do?isbn=9788975487224>
- 권석만 (2017).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학지사.
https://kobic.net/book/bookInfo/view.do?isbn=9788999711213&utm_source=chatgpt.com
- 권유경 (2016).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 공격성과 심리적 자아: 여성 자해 환자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1), 89-113.
<https://accesson.kr/cpkjournal/assets/pdf/25690/journal-2-1-89.pdf>

- 이수림, 이문희 (2018). 한국판 정신화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9(5), 117-135.
<https://doi.org/10.15703/kjc.19.5.201810.117>
- 이수진, 김은석 (2021). 정신화 기반 치료의 연구 동향과 추후 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37(2), 135-181.
<https://doi.org/10.16935/ejss.2021.37.2.005>
- 이한우, 염동문 (2015). 대학생의 정서인식과 대인관계 간의 관련성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의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85-10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1056>
- 이홍,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30293>
- 임선영, 고은영 (2017). 경계선 성격특성이 음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 긴급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4), 81-101.
<https://doi.org/10.15703/kjc.18.4.201708.81>
- 임선영, 이영호 (2016).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UPPS-P)의 준거 타당화 연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791-814.
<https://doi.org/10.17315/kjhp.2016.21.4.007>
- 임선영, 이영호 (2014).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1), 51-71.
<https://doi.org/10.15842/kjcp.2014.33.1.004>
- 정남운 (2005). 대인관계 형용사척도 (KIAS-40)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83-59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78036>
- 차혜명, 김은영 (2016). 정신화(mentalization) 개념을 통한 애착 이론과 정신 분석의 재조명.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167-190.
<https://doi.org/10.22257/kjp.2016.03.35.1.167>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22199>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https://accesson.kr/kjcp/assets/pdf/26659/journal-19-1-161.pdf>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https://doi.org/10.1080/00223891.1990.9674088>
- Allen, J. G., & Fonagy, P. (Eds.). (2006). *The handbook of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John Wiley & Sons.
https://openlibrary.org/books/OL17204067M/Handbook_of_mentalization-based_treatment
- Ammerman, B. A., Kleiman, E. M., Uyeji, L. L., Knorr, A. C., & McCloskey, M. S. (2015). Suicidal and violent behavior: The role of

- anger, emotion dysregulation, 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9, 57-62.
<https://doi.org/10.1016/j.paid.2015.01.044>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Ayduk, Ö., Mischel, W., & Downey, G.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Bailey, C. A., & Ostrov, J. M. (2008). Differentiating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s: Associations with hostile attribution biases and normative belief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6), 713-722.
<https://doi.org/10.1007/s10964-007-9211-5>
- Bandura, A. (1973). Social learning analysis of aggression. In J. F. Knutson (Ed.), *The control of aggression: Implications from basic research* (pp. 201-250). Aldine.
https://books.google.com/books/about/The_control_of_aggression.html?id=ybIQQAIAAJ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ateman, A., & Fonagy, P. (2016).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for personality disorders: A practical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academic.oup.com/book/1358>
- Bateman, A., & Fonagy, P. (2013).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Psychoanalytic Inquiry*, 33(6), 595-613.
<https://doi.org/10.1002/j.2051-5545.2010.tb00255.x>
- Bateman, A., & Fonagy, P. (2007). Mentaliz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Mental Health*, 16(1), 83-101.
<https://doi.org/10.1080/09638230601182045>
- Bechara, A. (2004). The role of emotion in decision-making: Evidence from neurological patients with orbitofrontal damage. *Brain and cognition*, 55(1), 30-40.
doi: 10.1016/j.bandc.2003.04.001
- Bechara, A. (2005). Decision making, impulse control and loss of willpower to resist drugs: A neurocognitive perspective. *Nature Neuroscience*, 8(11), 1458-1463.
<https://doi.org/10.1038/nn1584>
- Berg, J. M., Latzman, R. D., Bliwise, N. G., & Lilienfeld, S. O. (2015). Parsing the heterogeneity of impulsivity: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behavioral implications of the UPPS for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Assessment*, 27(4), 1129-1146.
<https://doi.org/10.1037/pas0000111>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Temple University Press.
<https://books.google.com.sg/books/about/Aggression.html?id=nkCNQgAACAAJ>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 Books.
https://books.google.com/books/about/Secure_Base_A.html?id=rk8QAQAAMAAJ
- Braungart Rieker, J. M., Garwood, M. M., Powers, B. P., & Wang, X. (2001). Parental sensitivity, infant affect, and affect regulation: Predictors of lat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72*(1), 252-270.
<https://doi.org/10.1111/1467-8624.00277>
- Cacioppo, J. T., & Patrick, W. (2008). *Loneliness: Human nature and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W.W. Norton & Company.
- Carver, C. S., & Johnson, S. L. (2018). Impulsive reactivity to emotion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American Psychologist, 73*(9), 1067-1078.
<https://doi.org/10.1037/amp0000387>
- Chester, D. S., Lynam, D. R., Milich, R., Powell, D. K., Andersen, A. H., & DeWall, C. N. (2016). How do negative emotions impair self-control? A neural model of negative urgency. *NeuroImage, 132*, 43-50.
<https://doi.org/10.1016/j.neuroimage.2016.02.024>
- Coyne, J. C. (1976). Toward an interactional description of depression. *Psychiatry, 39*(1), 28-40.
DOI: 10.1080/00332747.1976.11023874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778.x>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Cyders, M. A., & Coskunpinar, A. (2010). Is urgency emotionality? Separating urgent behaviors from effects of emotional experi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7), 839-844.
<https://doi.org/10.1016/j.paid.2010.02.009>
- Cyders, M. A., & Smith, G. T. (2008). Emotion-based dispositions to rash action: Positive and negative urgency. *Psychological Bulletin, 134*(6), 807-828.
<https://doi.org/10.1037/a0013341>
- Cyders, M. A., Smith, G. T., Spillane, N. S., Fischer, S., Annus, A. M., & Peterson, C. (2007). Integration of impulsivity and positive mood to predict risky behavi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positive urgency. *Psychological Assessment, 19*(1), 107-118
<https://doi.org/10.1037/1040-3590.19.1.107>
- Davidson, R. J. (2003). Affective neuroscience and psychophysiology: Toward a synthesis. *Psychophysiology, 40*(5), 655-665.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pdfdirect/10.1111/1469-8986.00067>
- Davila, J., & Beck, J. G. (2002). Is social anxiety associated with impairment in close relationship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Behavior Therapy, 33*(3), 427-446.
[https://doi.org/10.1016/S0005-7894\(02\)80037-5](https://doi.org/10.1016/S0005-7894(02)80037-5)
- Dimitrijević, A., Hanak, N., Altaras Dimitrijević, A., & Jolić Marjanović, Z. (2018). The Mentalization Scale (MentS): A self-report

- measure for the assessment of mentalizing capac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0(3), 268-280.
<https://doi.org/10.1080/00223891.2017.1310730>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https://doi.org/10.1037//0022-3514.53.6.1146>
- Dolan, R. J. (2007). The human amygdala and orbital prefrontal cortex in behavioural regulat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2(1481), 787-799.
<https://doi.org/10.1098/rstb.2007.208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 Company.
https://books.google.com/books/about/Identity_Youth_and_Crisis.html?id=nGqc6JxV0aQC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W.W. Norton & Company.
https://openlibrary.org/books/OL14416730M/Childhood_and_society
- Evans, D. E., & Rothbart, M. K. (2007). Developing a model for adult tempera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5), 868-888.
<https://doi.org/10.1016/j.jrp.2006.11.002>
- Evans, S. C., Fite, P. J., Hendrickson, M. L., Rubens, S. L., & Mages, A. K. (2015). The role of reactive aggression in the link between hyperactive - impulsive behaviors and peer rejection in adolescen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6(6), 903-912.
<https://doi.org/10.1007/s10578-014-0530-y>
- Fite, P. J., Rathert, J. L., Stoppelbein, L., & Greening, L. (2012). Social problems as a mediator of the link between reactive aggression and withdrawn/depressed sympto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84-189.
<https://doi.org/10.1007/s10826-011-9461-4>
- Fonagy, P. (2003). The developmental roots of violence in the failure of mentalization. In F. Pfäfflin & G. Adshead (Eds.), *A matter of security: The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to forensic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pp. 13-56). Jessica Kingsley Publishers.
<http://ndl.ethernet.edu.et/bitstream/123456789/34232/1/143.pdf#page=15>
- Fonagy, P. (2001). The human genome and the representational world: The role of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in creating an interpersonal interpretive mechanism.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5(3), 427-448.
<https://doi.org/10.1521/bumc.65.3.427.19844>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4), 639-656.
<https://psptraining.com/wp-content/uploads/Fonagy-ThinkingAboutThinking.pdf>
- Fonagy, P., & Allison, E. (2013). What is mentalization?: The concept and its foundation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P. Fonagy, G. Gergely, E. Jurist, & M. Target (Eds.), *Minding the child: Mentalization-based interventions with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pp. 11-34). Routledge.

- <https://www.routledge.com/Minding-the-Child-Mentalization-Based-Interventions-with-Children-Young-People-and-their-Families/p/book/9780415605250>
- Fonagy, P., & Bateman, A. W. (2016).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actical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academic.oup.com/book/1358>
- Fonagy, P., & Campbell, C. (2017). Mentalizing, attachment and epistemic trust: How psychotherapy can promote resilience. *Psychiatria Hungarica*, 32(3), 283-287.
https://discovery.ucl.ac.uk/id/eprint/1574378/1/Fonagy_Mentalizing%20attachment%20and%20epistemic%20trust.pdf
- Fonagy, P., & Luyten, P. (2009). A developmental,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355-1381.
<https://doi.org/10.1017/S0954579409990198>
- Fonagy, P., & Luyten, P. (2018). Conduct problems in youth and the RDoC approach: A developmental, evolutionary-based 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64, 57-76.
<https://doi.org/10.1016/j.cpr.2017.08.010>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79-700.
<https://doi.org/10.1017/S0954579497001399>
- Fonagy, P., Target, M., Steele, H., & Steele, M. (1998). *Reflective-functioning manual (Version 5): For application to adult attachment interviews* [Unpublished technical manual].
<https://discovery.ucl.ac.uk/id/eprint/1461016/1/Reflective%20Functioning%20Manual%20v5%201998.pdf>
- Gagnon, J., McDuff, P., Daelman, S., & Fournier, S. (2015). Is hostile attributional bias associated with negative urgency and impulsive behaviors? A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2, 18-23.
<https://doi.org/10.1016/j.paid.2014.08.011>
- Gagnon, J., & Rochat, L. (2017). Relationships between hostile attribution bias, negative urgency, and reactive aggression.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8(4), 211-219.
<https://doi.org/10.1027/1614-0001/a000238>
- Gardner, K. J., Archer, J., & Jackson, S. (2012). Does maladaptive coping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8(5), 403-413.
<https://doi.org/10.1002/ab.21437>
- Grimaldi, E. M., Napper, L. E., & LaBrie, J. W. (2014). Relational aggression, positive urgency and negative urgency: Predicting alcohol use and consequences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8(3), 893-898. <https://doi.org/10.1037/a0037354>
- Haley, D. W., & Stansbury, K. (2003). Infant stress and parent responsiveness: Regulation of physiology and behavior during still face and reunion. *Child Development*, 74(5), 1534-1546.
<https://doi.org/10.1111/1467-8624.00621>
- Hawley, P. H., & Little, T. D. (2002). The role of aggression in social development. In R. J.

- V. H. M. van der Meulen & G. J. J. M. Janssens (Eds.),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pp. 123-145). Psychology Press.
<https://www.amazon.com/Aggression-Antisocial-Behavior-Children-Adolescents/dp/1593850913>
- Hayes, A. F. (2021).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The Guilford Press.
- Hecht, L. K., & Latzman, R. D. (2015). Revealing the nuanced associations between facets of trait impulsivity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192-197.
<https://doi.org/10.1016/j.paid.2015.04.021>
- Herrero-Fernández, D., Parada-Fernández, P., Rodríguez-Arcos, I., Amaya-Carrillo, L., González-Sáez, M.E. & Rubio-González, M. (2022).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aggression on the road.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r*, 86, 345-355.
<https://doi.org/10.1016/j.trf.2022.03.009>
- Horney, K.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이희경, 윤인, 이해리, 조한익 역). 학지사. (원전1945 출간).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6602_7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https://doi.org/10.1037//0022-006x.56.6.88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Igartua, J. J., & Hayes, A. F. (2021).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Concepts, computations, and some common confusion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24, Article e49..
<https://doi.org/10.1017/SJP.2021.46>
- Johnson, S. L., Leedom, L. J., & Muhtadie, L. (2012). The dominance behavioral system and psychopathology: Evidence from self-report, observational, and biolog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8(4), 692-743.
<https://doi.org/10.1037/a0027503>
- King, K. M., Feil, M. C., & Halvorson, M. A. (2018). Negative urgency is correlated with the use of reflexive and disengagement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6(6), 822-834.
<https://doi.org/10.1177/2167702618785619>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https://openlibrary.org/books/OL28574830M/Principles_and_Practice_of_Structural_Equation_Modeling_Fourth_Edition
- Koolen, S., Poorthuis, A., & van Aken, M. A. G. (2012). Cognitive distortions and self-regulatory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early

- adolesc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6(6), 776-787.
<https://doi.org/10.1007/s10608-011-9407-6>
- Koster-Hale, J., Richardson, H., Velez, N., Asaba, M., Young, L., & Saxe, R. (2017). Mentalizing regions represent distributed, continuous, and abstract dimensions of others' beliefs. *NeuroImage*, 161, 9-18.
<https://doi.org/10.1016/j.neuroimage.2017.08.026>
- La Greca, A. M., & Harrison, H. M. (2005). Adolescent peer relation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Do they predic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1), 49-61.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401_5
- Lesnick, J., & Mendle, J. (2021). Rejection sensitivity and negative urgency: A proposed framework of intersecting risk for peer stress. *Developmental Review*, 62, Article e100998.
<https://doi.org/10.1016/j.dr.2021.100998>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https://ils.unc.edu/courses/2020_fall/inls558_001/adultdevelopment.pdf
- Lickley, R. A., & Sebastian, C. L. (2018). The neural basis of reactive aggression and its development in adolescence. *Psychology, Crime & Law*, 24(3), 313-333.
<https://doi.org/10.1080/1068316X.2017.1420187>
- Luyten, P., Campbell, C., Allison, E., & Fonagy, P. (2020). The mentalizing approach to psychopathology: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6, 297-325.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071919-015355>
- Mackintosh, K., Power, K., Schwannauer, M., & Chan, S. W.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compassion,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clinical patients with mixed anxiety and depression and emotional distress. *Mindfulness*, 9(3), 961-971.
<https://doi.org/10.1007/s12671-017-0835-6>
- Marcus, R. F., & Kramer, C. (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predict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3), 260-275.
<https://doi.org/10.1080/00221320109597483>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Guilford Press.
https://openlibrary.org/books/OL8874754M/Attachment_in_Adulthood
- Miller, J. D., Zeichner, A., & Wilson, L. F. (2012). Personality correlates of aggression: Evidence from measures of the five-factor model, UPPS model of impulsivity, and BIS/BA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4), 2903-2919.
<https://doi.org/10.1177/0886260512438279>
- Morales, J., & Crick, N.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Minnesota.
- Mueller, R. O., & Hancock, G. R. (2010). Updated and expand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delines. In G. R. Hancock & R. O. Mueller (Eds.), *The reviewer's guide to quantitative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pp. 389-407). Routledge.
- Parada-Fernández, P., Herrero-Fernández, D.,

- Oliva-Macías, M. & Rohwer, H. (2021).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 dysregul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62(3), 312-320. <https://doi.org/10.1111/sjop.12717>
- Parada Fernández, P., Herrero Fernández, D., & Rodríguez Arcos, I. (2023). The moderation effect of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aggressive behavio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64(6), 794-801. <https://doi.org/10.1111/sjop.12944>.
- Peters, J. R., Eisenlohr-Moul, T. A., Upton, B. T., & Baer, R. A. (2016). Negative urgency account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young me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0(2), 208-224. https://doi.org/10.1521/pedi_2015_29_193
- Porcelli, S. (2019). *Negative urgency and interpersonal conflict: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ve symptoms* (Master's thesis). Cornell University. <https://hdl.handle.net/1813/67528>
- Poulin, F., & Boivin, M. (2000). The role of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boys'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33-240. <https://doi.org/10.1037//0012-1649.36.2.23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https://doi.org/10.3758/BF03206553>
- Reis, H. T., & Gable, S. L. (2003).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relationships. In C. L. M.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pp. 129-15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594-006>
- Schermelleh-Engel, K., Moosbrugger, H., & Müller, H. (2003).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line*, 8(2), 23-74. https://www.stats.ox.ac.uk/~snijders/mpr_Schermelleh.pdf
- Schulz, K. P., Fan, J., Magidina, O., Marks, D. J., Hahn, B., & Halperin, J. M. (2007). Does the emotional go/no-go task really measure behavioral inhibition? Convergence with measures on a non-emotional analog. *Archives of Clinical Neuropsychology*, 22, 151-160. <https://doi.org/10.1016/j.acn.2006.12.001>
- Schwarzer, N. H., Nolte, T., Fonagy, P., & Gengelmaier, S. (2021). Mentalizing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and potential for aggression in non-clinical adults. *Child Abuse & Neglect*, 115, Article e105018. <https://doi.org/10.1016/j.chiabu.2021.105018>
- Scott, J. P., DiLillo, D., Maldonado, R. C., & Watkins, L. E. (2015). Negative urgenc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use: Associations with displace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41(5), 502-512. <https://doi.org/10.1002/ab.21588>
- Segrin, C. (2001). *Interpersonal processes in psychological problems*. Guilford Press. <https://books.google.com/books?id=ZUH9oQEA>

- CAAJ
- Settles, R. E., Fischer, S., Cyders, M. A., Combs, J. L., Gunn, R. L., & Smith, G. T. (2012). Negative urgency: A personality predictor of externalizing behavior characterized by neuroticism, low conscientiousness, and disagreeablen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1), 160-172.
<https://doi.org/10.1037/a0024948>
- Sharp, C., Ha, C., Michonski, J., Venta, A., Paterson, M., Sivaratnam, C., & Fonagy, P. (2013). Hypermentalizing in adolescent inpatients: Treatment effects and association with borderline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1), 3-18.
<https://doi.org/10.1521/pe.2013.27.1.3>
- Shiv, B., Loewenstein, G., & Bechara, A. (2005). The dark side of emotion in decision-making: When individuals with decreased emotional reactions make more advantageous decisions. *Cognitive brain research, 23*(1), 85-92.
- Smith, G. T., & Cyders, M. A. (2016). Integrating affect and impulsivity: The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urgency in substance use risk.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63*, S3-S12.
<https://doi.org/10.1016/j.drugalcdep.2015.08.038>
- Smith, T. W., Allred, K. D., Morrison, C. A., & Carlson, S. D. (1989). Cardiovascular reactivity and interpersonal influence: Active coping in a soci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09-218.
<https://doi.org/10.1037/0022-3514.56.2.209>
- Smith, T. W., Baldwin, M., & Christensen, A. (1990). Interpersonal influence as active coping: Effects of task difficulty on cardiovascular reactivity. *Psychophysiology, 27*(4), 429-437.
<https://doi.org/10.1111/j.1469-8986.1990.tb02007.x>
- Smith, T. W., Limon, M., Gallo, L. C., & Ngu, L. (1996). Hostility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during marital interaction. *Psychosomatic Medicine, 58*(4), 381-388.
<https://doi.org/10.1097/00006842-199607000-00002>
- Stanford, M. S., Greve, K. W., & Dickens Jr, T. J. (1995). Irritability and impulsiveness: Relationship to self-reported impulsive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5), 757-760.
[https://doi.org/10.1016/0191-8869\(95\)00144-U](https://doi.org/10.1016/0191-8869(95)00144-U)
- Stanford, M. S., Houston, R. J., Mathias, C. W., Villemarette-Pittman, N. R., Helfritz, L. E., & Conklin, S. M. (2003). Characterizing Aggressive Behavior. *Assessment, 10*(2), 183-190.
<https://doi.org/10.1177/1073191103010002009>
- Taherifard, M., Abolghasemi, A., & Hajloo, N. (2015). Positive and negative urgency and sleep quality among patients with bor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Archives of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17*(4), 105-112.
<https://doi.org/10.12740/APP/61255>
- Taubner, S., & Curth, C. (2013). Mentalization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early traumatic experiences and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ce. *Psibologija, 46*(2), 177-192.
<https://doi.org/10.2298/PSI1302177T>
- Taubner, S., Zimmermann, L., Ramberg, A., & Schröder, P. (2016). Mentaliz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treatment

- and potential for violence in adolescence. *Psychopathology*, 49(4), 236-246.
<https://doi.org/10.1159/000448053>
- Twemlow, S. W., Fonagy, P., Sacco, F. C., Gies, M. L., Evans, R., & Ewbank, R. (2001). Creating a peaceful school learning environment: A controlled study of an elementary school intervention to reduce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5), 808-810.
<https://doi.org/10.1176/appi.ajp.158.5.808>
- Velotti, P., Garofalo, C., Petrocchi, C., Cavallo, F., Popolo, R., & Dimaggio, G. (2016). Alexithymia, emotion dysregulation, impulsivity and aggression: A multiple mediation model. *Psychiatry Research*, 237, 296-303.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6.01.025>
- Verbruggen, F., & De Houwer, J. (2007). Do emotional stimuli interfere with response inhibition? Evidence from the stop signal paradigm. *Cognition and Emotion*, 21(2), 391-403.
<https://doi.org/10.1080/02699930600625081>
-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E. (2002).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ve children: Antecedent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95-505.
<http://doi.org/10.1111/1469-7610.00040>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1).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4), 669-689.
[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064-7](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064-7)
- Wiggins, J. S. (1991).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 (IAS)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Zheng, S., Marcos, M., Stewart, K. E., Szabo, J., Pawluk, E., Girard, T. A., & Koerner, N. (2022). Worry, intolerance of uncertainty, negative urgency, and their associations to paranoid thin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6, Article e111382.
<https://doi.org/10.1016/j.paid.2021.111382>
- Zimmer-Gembeck, M. J., Nesdale, D., Webb, H. J., Khatibi, M., & Downey, G. (2016). A longitudinal rejection sensitivity mod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Unique roles of anxiety, anger, blame, withdrawal and retribu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7), 1291-1307.
<https://doi.org/10.1007/s10802-016-0127-y>

원고접수일 : 2025. 08. 08.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9. 29.

게재확정일 : 2025. 10. 10.

Negative Urgency and Reactive Aggression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Early Adulthoo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Mentalizing

Seonyoung Kim¹⁾ Jonghwan Lee²⁾ Jongmin Lim³⁾ Munseon Chang^{4)†}

¹⁾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

²⁾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Research Professor

³⁾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Assistant Professor

⁴⁾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negative urgency on interpersonal problems through reactive agg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role of mentalizing. Data were collected via an online survey from 436 adults aged 20-39, and a moderated mediation model was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reactive aggre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urg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Mentalizing moderated the effect of negative urgency on reactive aggression, such that higher levels of mentalizing weakened this influenc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also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ntalizing may act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interpersonal difficulties in early adulthood.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mechanisms linking emotion-driven impulsivity to interpersonal problem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entalizing within this pathway.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mentalizing, negative urgency, reactive aggression, interpersonal problems

† Corresponding Author: Munseon Chang /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41566) 80 Daehakro, Bukgu, Daegu, Republic of Korea / Tel: 053-950-5247 / E-mail: moonsun@knu.ac.kr